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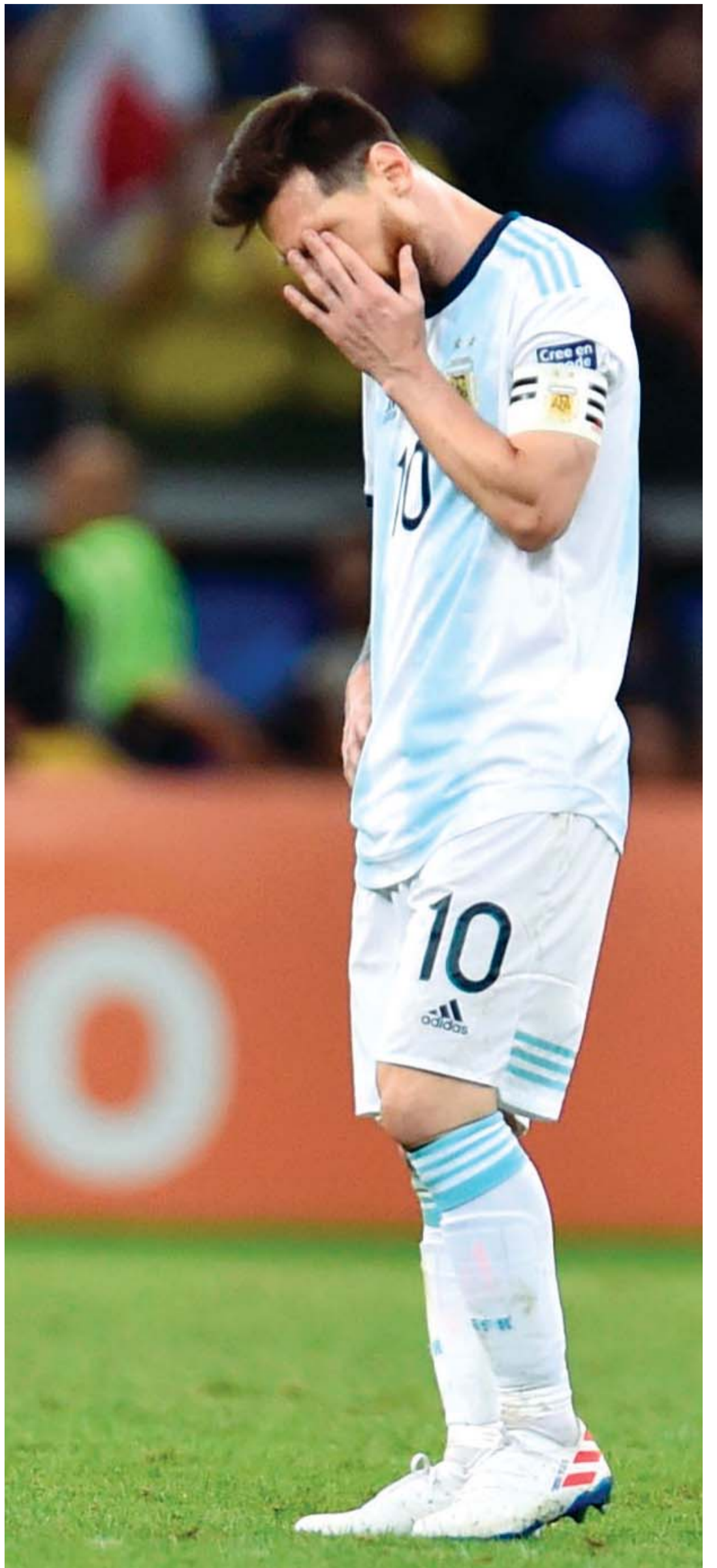
메시 또 '무관의恨'... 멀어진 발롱도르

아르헨티나, 코파아메리카 준결승전 브라질에 0-2 패... 메시 필드골 '0' 국가대표 경기 8차례 출전 준수율만 3회... 내년대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가 국가대표 무관의 징크스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메시는 코파아메리카 4강에서 탈락하면서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수여되는 2019 발롱도르 수상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3일 오전 브라질 에스타디오 마네이로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코파아메리카 4강에서 홈팀 브라질에 0-2로 패했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게로(31·맨체스터 시티) 등이 출전했다. 브라질은 공격수 호베르투 피르미누(28)를 필두로 가브리엘 제주스(22·맨체스터 시티)를 세우며 맞붙었다. 개최국 브라질은 주도권을 잡고 아르헨티나를 밀어 붙였고 전반 19분 결실을 봤다.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가브리엘 제주스가 이를 깔끔한 마무리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아르헨티나에게도 만회골의 기회는 있었다. 전반 30분 프리킥 상황에서 세르히오 아게로의

회심의 헤딩슛은 골대에 맞고 나왔다. 후반 12분 메시의 날카로운 슈팅은 골대에 맞고 빙겨 나왔다. 잇따라 찬스를 놓친 아르헨티나는 제주스에게 환상적인 돌파를 허용했다.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능란한 제주스는 피르미누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줬고, 피르미누는 가볍게 차 넣었고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 메시는 필드골 '0'을 기록하며 대회를 끝냈다. 메시는 그동안 월드컵과 코파아메리카에 8차례 출전했으나 '무관'에 그쳤다. 월드컵 준수율 1차레, 코파아메리카는 5차레에 출전해 준수율만 3차례 기록했다. 2007 코파아메리카에는 준수율, 2010 남아공 월드컵과 2011 코파아메리카에서는 8강 진출에 그쳤다. 절치부심한 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독일의 마리오 괴체에게 발목을 잡혀 눈물을 흘렸다. 2015 코파아메리카와

코파아메리카 개최 100주년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열린 2016 코파아메리카 센타리오에서도 칠레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시는 국제 대회 무관 징크스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33개 우승 트로피와 발롱도르만 5차례 받는 등 세계 최고의 선수다. 하지만 대표팀에선 2005년 U-20 월드컵과 2008 베이징 올림픽(23세 이하) 우승이 유일하다. 역대 최고 반열에 오른 선수임이 분명하지만, 성인 대표팀에서 만큼은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다. 반면,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는 최근 열린 UEFA 네이션스리그와 유로 2016에서 조국 포르투갈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한편 지난해 남미축구연맹은 짧게는 1년에서 4년 주기로 들쭉날쭉하게 열린 코파아메리카를 다음해부터 4년 주기로 열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개최되는 2020 코파아메리카가 사실상 메시의 마지막 우승기회이다. 내년엔 열리는 코파아메리카에서 메시가 '우승'의 한을 풀지 주목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게 대체 몇번째야”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코파아메리카 준결승전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낙담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택 '완전체 포수'로 진화중

올 시즌 67경기 485.1이닝 경기... 풀타임 도전 2라운드 진입 경험 쌓아가며 공·수 안정... 최근 멀티히트로 타격 슬럼프 탈출



KIA 타이거즈 한승택 <사진>의 '풀타임 도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19시즌 KIA의 안방마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한승택이다.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 매서운 타격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안방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3일 경기 전까지 67경기에 출전한 그는 입단 후 가장 많은 205타석에도 들어갔다. 역시 소화한 수비 이닝도 가장 많다. 이미 2017년 기록한 306.1이닝을 넘어 485.1이닝을 책임졌다. 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을 더해가고 있는 한승택의 올 시즌 가장 큰 목표는 '풀타임'이다. 그만큼 부상이 없어야 하고 실력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목표다. 잘나기던 한승택의 시즌은 지난 6월 중순 고비를 맞았다. 6월 11일 삼성전 멀티히트 이후 6월 23일까지 한승택은 소득 없이 타석에서 물러났다. 이 기간 19타수 무안타, 삼진은 8개를 기록했다. 이어진 침묵 속에 한승택의 6월 성적은 타율 0.188, 2타점, 3볼넷 17삼진으로 끝났다. 5개의 병살타도 기록했다. 수비가 중요한 포수 자리지만 공격 부진은 한승택에게 부담이 됐다. 한승택은 “이걸 왜 지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이 좋지 못했다. 왜냐하면 공에도 손이 나가기도 했다. 흔히 타자들이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하고 타격을 하는데 그 존이 없어진 느낌이었다”고 최근 부진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행히 한승택은 지난 6월 26일 키움전 멀티히

트와 함께 공격 슬럼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한승택은 “타격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해봤다. 스탠스도 바꿔보고 방향도 짧게 짧게 등 다양한 변화를 주고 시도했다. 정성훈 코치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이 조금 더 보인다. 타격이 안 좋을 때 체감하는 공 스피드도 더 빠르게 느껴지는 데 지금은 안 좋았을 때보다 공이 더 잘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비는 포수에게 기본이다. 그런데 풀타임을 하고 주전 포수를 하려면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타격에 욕심낼 수밖에 없다”며 “초반에는 타율에 신경 썼는데 지금은 타석 자체에 집중하려 한다. 최대한 출루도 하고 매 타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수비는 매일 경험을 더하면서 팀의 '젊은 투수'들과 함께 성장 중이다. 한승택은 “나도 그렇지만 투수들 자신감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코칭스태프에서도 공격적인 승부를 주문하시고 나도 최대한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한다”며 “투수들 유형이 다르니까 수비를 나갈 때마다 많이 배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한승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다. 올 시즌 KBO리그는 유난히 부상 선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승택도 전역 후 KIA에서의 첫 일정이었던 2016년 미국 교육리그에서 강속구에 머리를 맞으며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었다. 한승택은 “요즘 선수들의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 아픈 게 우선이다. 꾸준하게 하면서 시즌 끝까지 뛰는 게 목표다”며 7월 선전을 다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전타 최형우 “독기 품고 들어갔죠”

덕아웃 T 특특

▲독기 품고 들어갔죠 = 독기 품은 결승타 주인공 공이었다. 최형우는 지난 2일 NC와의 경기에서 2-2로 맞선 무사 만루서 좌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경기가 5-3,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최형우는 결승타를 기록하게 됐다. 앞선 세 타석에서는 땅볼만 기록했던 최형우는 결승타 상황에 대해 “감은 나쁘지 않았는데 앞선 타석에서 결과가 좋지 못해서 화가 났다”며 “독기를 품고 들어갔다. 마지막에 꼭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운이 좋았어요 = KIA 전상현이 네 번째 시즌에서 데뷔 첫승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 2일 NC와의 경기에서 1-2로 뒤진 8회말 선발 김기훈과 이준영-고영창에 이어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전상현은 선두타자 양의지를 불넷으로 내보냈지만 연속 삼진으로 투 아웃을 채웠고, 권희동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하며 2사 1·2루에 몰렸지만 이원재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삼점 없이 8회를 끝냈다. 그리고 이어진 8회말 KIA 타선이 4점을 뽑

으면서 역전에 성공, 전상현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전상현은 “내가 잘했기보다는 타자들이 점수를 내주면서 운이 따른 것이다”고 웃었다.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았던 전상현은 ‘욕심’을 버리고 남은 시즌을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전상현은 “제구가 안 좋아서 최근 결과가 좋지 못했다. 너무 어렵게 코너코너로 던지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며 “시즌 초반에 던질 때와 다른 부분이 있다. 욕심을 버리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양현종이요 = 2일 경기에서 김기훈과 배터리를 이었던 한승택은 3일 훈련 시간에 취재진으로부터 김기훈의 직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승택은 “받으면 놀랄 정도로 좋은 건 아닌데 확실하게 회전이 좋다”며 “타점도 좋다. 직구 자체의 위력으로 보면 현종이 형이 좋은데, 공 회전이 좋고 타점이 비슷하다. (공을) 때리는 감각은 타고난 것 같다”고 좋은 평가를 해줬다. 김기훈에게 아쉬운 것은 역시 변화구 제구다. “변화구 제구까지 더해보면 승부하기 편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말에 한승택은 “그러면 양현종이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브라질 공격수 영입 '화력 강화'

브루노 바이오, 197cm의 장신 공중볼 경합·슈팅 능력 등 탁월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브라질 보루포랑겐스에서 뛰는 브루노 바이오(24)를 영입했다. 브라질 명문 이테르나시오나우(전체1부) 유스에서 성장한 브루노 바이오는 19세에 1부리그 데뷔한 기대주다. 브루노 바이오는 197cm의 장신으로 공중볼 경합과 헤딩 슈팅 능력이 우수하며, 장신임에도 볼 터치 및 소유능력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또한 스크린 플레이와 이동 트래킹 후 슈팅 능력이 탁월하다. 2018년 20경기에 출장해 10골 3도움을 남긴 그는 2019년에는 12경기에 나와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파비아노 감독은 “전남의 공격이 한 층 강화되었다. 그동안 득점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팀도 전력 보강과 부천전 승리를 통해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후반기 반동을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브루노 바이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는데 아름답고 좋은 것 같다. K리그에서 뛰게 되어 설레고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뛰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돕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